Piano Concerto No. 1, Sz. 83

- □□

정보

Béla Bartók: Piano Concerto No. 1

개요
작곡가: Béla Bartók (1881–1945)
작품명: Piano Concerto No. 1, Sz. 83 (BB 91, W 58)
장르: 독주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작곡 시기: 1926년
초연: 1927년 7월 1일, 프랑크푸르트 , Béla Bartók 독주, Wilhelm Furtwängler 지휘, Frankfurter Opernhausorchester
초판: 1927년, Universal Edition
개정판: 1929년 Universal Edition 제 2판
공식 구성: 세 악장
관현악 버전 연주 시간: 약 23–25분

출판 정보와 자료

이 작품은 Universal Edition에서 1927년에 초판이 나왔고, 1928년에는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판본이 출판되었다 . 1929년에는 개정된 제 2판이 나왔다. HUN-REN BTK ZTI의 Sarah Lucas 연구 자료는 1927년 초판에 오류가 있어 회수되었으며 , 1929년 판에도 템포 표기에 문제가 남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연주자는
특정 판본의 출판 연도뿐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악보의 편집 상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IMSLP: Piano Concerto No. 1, Sz. 83

Wikipedia: Piano Concerto No. 1 (Bartók)

벨러 버르토크의 Piano Concerto No. 1은 1926년에 완성된 피아노 협주곡으로 , 독주 피아노와 관현악의
관계를 전통적인 반주와 독주의 틀보다 훨씬 거칠고 밀도 높은 대화로 바꾼다. 작품은 I. Allegro moderato – Allegro, II. Andante – attacca, III. Allegro molto의 세 악장으로 이루어지며 , 제 2악장에서 제 3악장으로는
악보에 적힌 대로 끊지 않고 이어진다. 이 글은 1926년 전곡과 1927년 초판, 1929년 개정판을 중심으로
작품의 구조와 편성, 초기 연주와 이후의 해석을 설명한다.

소요 시간

출판사와 공연 자료는 대체로 23분 안팎을 제시하며, 실제 녹음은 약 22분에서 26분까지 차이가 난다. HUN-REN BTK ZTI의 Bartók 녹음 자료는 세 악장을 합쳐 22분 16초로 기록하고, Aimard와 Salonen의 녹음은 24 분 34초, Pollini와 Abbado의 녹음은 23분 25초를 사용한다. 템포와 악장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전체 시간이 달라지므로 , 약 23–25분이라는 범위가 작품의 일반적인 규모를 가장 잘 나타낸다.

편성

독주 피아노와 다음 관현악이 필요하다.

목관악기: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악기: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타악기: 팀파니와 작은북, 큰북, 심벌즈, 트라이앵글 , 탐탐 등 여러 악기
현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제 2악장에는 현악기가 연주하지 않는다. 이 공백 때문에 피아노와 타악기, 목관악기의 선명한 윤곽이 전면에 드러나며, 현악기가 다시 들어오는 제 3악장의 질감 변화도 뚜렷해진다 . Pentatone 북클릿이 전하는 자료에 따르면 버르토크는 피아노를 타악기처럼 다루는 효과와 피아노, 타악기, 관현악이 서로 맞서는 콘체르탄테적
관계를 의도했다. 같은 자료는 가능하면 타악기를 피아노 뒤쪽에 배치하라는 작곡가의 지시와, 초기
인쇄본에서 그 지시가 빠졌다가 다시 반영된 판본 문제도 전한다. 다만 공연장의 배치와 사용하는 악보에 따라 실제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

판본과 초기 무대
버르토크는 1926년에 이 협주곡을 썼다. Universal Edition의 연대 자료는 1927년 7월 1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현대음악협회 축제를 세계 초연으로 기록한다. 버르토크가 피아노를 연주했고, Wilhelm Furtwängler가 지휘했으며 , 연주 악단은 Frankfurter Opernhausorchester였다. 이 초연은 작품의 난도가 높고 음향이 당시의 협주곡 관습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곧바로 드러냈다.

1928년 2월 13일에는 Fritz Reiner가 지휘한 Cincinnati Symphony Orchestra와 버르토크의 독주로 미국 초연이 이루어졌다 . HUN-REN BTK ZTI 연대기는 같은 해 3월 18일 부다페스트에서 버르토크와 Ernő Dohnányi가 함께한 초기 연주도 기록한다. Pentatone 북클릿은 버르토크가 Fritz Reiner에게 보낸 편지를 전하면서, 부다페스트 ·베를린 ·신시내티 공연마다 오케스트라의 균형과 정확도가 달랐다고 회고했다고 설명한다. 이 증언은 작품이 단순히 빠르고 큰 소리를 내는 곡이 아니라, 독주 피아노와 타악기성 관현악의 세부 균형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초판과 개정판의 차이는 실무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ZTI의 Lucas 연구는 1927년 초판의 오류 때문에 악보가 회수되었고 , 1929년 제 2판에서도 템포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지적한다. ZTI Bartók Archives는 이 두 판본과 자필 초고, 제판용 사본을 함께 보존하고 있다. 연주자는 초판의 연도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휘자와 독주자가 같은 판본과 정정 사항을 공유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세 악장의 작동 방식

I. *Allegro moderato – Allegro*

제 1악장은 느린 도입부와 빠른 주부가 결합된 소나타 형식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많다. PTNA의 형식 해설은 도입부와 코다가 있는 소나타 형식으로 보고, Tokyo Metropolitan Symphony Orchestra의 프로그램은 짧은 음의 반복, 세 음으로 된 당김음형, 짧고 짧은 뒤 긴 리듬, 상행·하행 음계라는 네 가지 재료가 계속 분해되고 재결합된다고 설명한다. 이 분석은 악보의 표제를 대신하는 공식 해설이 아니라, 반복과 변형이 어떻게 진행을 만드는지 읽어 내는 한 가지 방법이다.

피아노는 선율을 길게 노래하기보다 짧은 음형과 강한 화음, 불규칙한 악센트를 관현악에 던진다. 관현악은 그 음형을 그대로 받치지 않고 목관과 금관, 타악기로 나누어 응답한다. 그 결과 독주부와 반주부의 경계가 계속 바뀐다. 피아노의 빠른 패시지와 타악기의 공격적인 발음이 겹칠 때에도, 어느 한쪽이 단순한 배경이 되지 않도록 음량과 발음의 균형을 조절해야 한다.

II. *Andante – attacca*

제 2악장은 현악기를 완전히 쉬게 하고 피아노와 타악기에서 출발한다. TMSO 프로그램과 Los Angeles Philharmonic의 해설은 이 악장을 피아노와 타악기의 대화로 설명하며, 헝가리 국립 필하모닉도 같은 편성상의 특징을 확인한다. 처음에는 여백이 넓지만, 피아노의 단순한 음형과 타악기의 응답이 겹치면서 긴장이 쌓인다.

중간부에서는 독주 클라리넷의 선율이 나타난 뒤 여러 목관이 겹쳐지는 대위적 짜임으로 확장된다. 현악기가 없기 때문에 각 목관의 음색과 피아노의 타격이 분리되어 들린다. 이 악장의 핵심은 감상적인 느린 악장에 있지 않고, 제한된 재료와 편성으로 음색의 대비와 박동의 변화를 세밀하게 만드는 데 있다. 마지막에는 악보의 *attacca* 지시가 제 3악장으로의 전환을 직접 연결한다.

III. *Allegro molto*

제 3악장은 앞선 악장의 재료를 더 빠르고 복잡한 운동으로 밀어붙인다. TMSO와 Filarmônica de Minas Gerais의 해설은 제 1악장의 동기와 리듬이 다시 나타나고, 피아노·타악기·금관의 밀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헝가리 국립 필하모닉은 이 악장에서 바로크적 요소와 푸가토가 두드러진다고 본다. 이런 분석은 서로 다른 자료가 제시한 청취의 관점이며, 모든 연주가 동일한 강조점을 채택해야 한다는 규칙은 아니다.

피아노는 짧은 음형을 반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넓은 음역의 화음과 빠른 선형 패시지를 오간다. 관현악은 주제를 안정적으로 받쳐 주기보다 여러 성부로 잘게 나누어 독주자와 경쟁한다. 제 2악장의 고립된 음향 뒤에 현악과 금관이 다시 합류하면서, 마지막 악장은 전체 편성이 한꺼번에 작동하는 듯한 압력을 만든다. 결말은 별도의 자유 카덴차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종결부의 화려한 독주를 카덴차라고 단정하기보다 악장 전체의 추진력이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부분으로 듣는 편이 정확하다.

연주 전통과 수용
초기 공연에서 이 작품은 현대적인 음향과 높은 연주 난도 때문에 순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28년 The New Yorker의 동시대 글은 Reiner와 신시내티 공연, 버르토크의 미국 활동을 당시의 논쟁적인 현대음악
수용과 함께 다룬다. 1960년 TIME은 Fritz Reiner가 Rudolf Serkin과 Chicago Symphony Orchestra를
위해 작품을 다시 준비하면서 다섯 차례의 긴 리허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재공연은 미국 주요
오케스트라에서 드물게 연주되던 협주곡을 다시 무대에 올린 사례로 소개되었다 .

Los Angeles Philharmonic의 FastNotes는 Henry Cowell의 톤 클러스터와 관련된 버르토크의 발언, 그리고 초연 준비에 상당한 리허설이 필요했다는 전승을 함께 소개한다. 이 자료들은 작품의 난도를 과장하기 위한 일화라기보다 , 피아노의 타격과 관현악의 타악기적 발음을 맞추는 일이 연주 관행의 일부였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다.

녹음에서 드러나는 서로 다른 선택
녹음 시간과 비평은 이 곡의 해석 폭을 확인하게 한다. MusicWeb International은 1977년 Maurizio Pollini 와 Claudio Abbado, Chicago Symphony Orchestra의 녹음을 23분 25초로 기록하면서 강한 추진력과
명료한 앙상블을 평가한다. Kocsis와 Lehel의 녹음은 약 22분 12초로 더 짧으며, 같은 매체는 독주자의
통제력과 리듬의 선명도를 장점으로 들었다. 두 녹음의 차이는 단순한 빠르기 경쟁보다, 제 2악장의 여백과 제 3 악장으로 넘어가는 긴장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서 생긴다.

Pierre-Laurent Aimard, Esa-Pekka Salonen, San Francisco Symphony의 Pentatone 녹음은 약 24분 34 초를 사용한다. MusicWeb과 The Classic Review는 이 음반에서 피아노와 타악기의 질감, 현대적인 음향의 세부를 서로 다르게 평가한다. 2024년 Tzimon Barto와 Christoph Eschenbach, Deutsches Symphonie-Orchester Berlin의 녹음은 제 1·2·3악장을 각각 9분 39초, 8분 50초, 7분 45초로 제시한다. AllMusic의
평가는 이 음반의 음향을 설명하는 한 비평자의 견해이므로 , 특정 녹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기보다 여러
판본과 템포를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주요 자료

Universal Edition, Milestones for Orchestra 1915–1945

Boosey & Hawkes, Piano Concerto No. 1

HUN-REN BTK ZTI Bartók Archives, manuscripts

HUN-REN BTK ZTI, chronological catalogue

ISCM, 1927 Frankfurt World New Music Days

Pentatone, Bartók 북클릿

Tokyo Metropolitan Symphony Orchestra 프로그램

Los Angeles Philharmonic FastNotes

Béla Bartók Writings, notes on the first edition

- MusicWeb International, Pollini/Abbado recording
- MusicWeb International, Aimard/Salonen recording
- TIME, “Music: Barlok's Stepchild”